

# 광주인구 매년 꾸준한 증가... 10년간 8만명 늘었다

광주시 인구가 저출산 추세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10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거주 외국인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10일 광주시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2012년 말보다 4759명 증가한 148만846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는 49.6%인 73만8453명, 여자는 50.4%인 75만14명이었다. 또, 내국인은 147만2910명, 외국인은 1만555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2003년 광주지역 인구가 140만68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8만7784명이 증가한 셈이다.

작년말 148만84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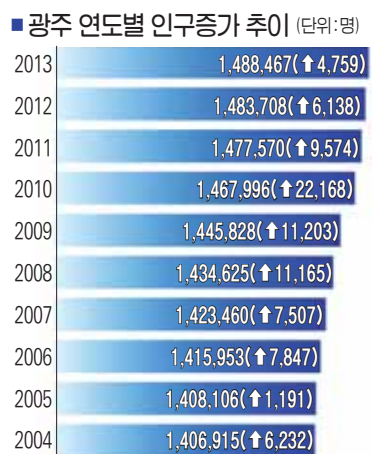
북구 30.2% 가장 많아

수완동 7만1455명

동곡동은 2261명

100세 이상 270명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인구가 이처럼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자동차와 금형, 가전산업, 광산업 등 제조업 집중 육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광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개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44만



9652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40만613명(26.9%), 서구 31만6725명(21.3%), 남구 21만7445명(14.6%) 그리고 동구 10만4032명(7.0%)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광산구 수완동으로 7만14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작은 동은 동곡동으로 22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구 3만 이상은 11개 동, 인구 4000명 이하는 5개 동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에 비해 유소년 인구는 소폭 줄고 생산가능 인구나 노인 인구는 늘어났다.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16.6%인 24만4932명, 그리고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73.1%인 107만6104명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3%인 15만1874명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총 27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남자는 31명(11.5%)에 그친 반면 여자는 압

도적 다수인 239명(8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065명 늘어난 1만5557명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출신이 가장 많은 5890명(37.9%)이었으며 베트남 출신 2633명(16.9%), 필리핀 출신 879명(5.6%)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44세로 울산(37.39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젊은 도시'로 조사됐으며, 특히 광산구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전국 인구는 5212만7386명으로 2012년 대비 24만6131명(0.5%)이 증가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 전국 첫 장애인체육센터 기공

염주체육관내 76억원 들여 2015년 개관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체육센터' 기공식이 10일 염주체육관 내 사업 예정 부지에서 열렸다. '장애인체육센터'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전문체육센터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50억원과 시비 26억원 등 총사업비 76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3732.7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건강검진·체력측정실, 장애인 체육회와 가맹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

이다. 오는 2015년 2월 개관하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훈련장으로 활용된 뒤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장애인체육센터가 장애인 관련 상담과 지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10일 광주 염주체육관 옆 부지에서 열린 장애인체육센터 기공식에서 강은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시장의 의장, 이하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발표 버튼을 누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AI로 고통받는 음식점을 도움시다

북구, 닭·오리 고기 소비촉진운동

광주시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닭·오리 고기 소비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금류 소비촉진 운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가금류 소비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식당 주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북구 관내에 말바우시장 등 10개의 전통시장과 오리요리 전문거리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일부터 오리요리 전문거리 등지에서 닭·오리요리 먹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이날은 북구 신안동 NC백화점 정문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북구지부·(사)축산기업광주시지회·새마을부녀회·공무원 등 500여명이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송광문 북구청장은 "이번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행사를 계기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 공원녹지예산 증가율 특·광역시중 최고

올 47억 늘린 382억원 확보...작년보다 14%↑

광주시의 2014년도 공원녹지예산 증가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일, 올해 공원녹지예산을 2013년도에 비해 47억원 증가한 382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7개 특·광역시의 경우 공원녹지 예산이 평균 15.4% 삭감됐으나, 광주시만 유일하게 14%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의 공원녹지예산 382억원 중 국비는 126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2억 원에 비해 7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도심 내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주경기장 경관 숲 조성, 주요 관문 이미지 숲 조성, 주요 도로변 가시권 녹화 등 경관개선 사업비가 43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 늘었다. 또, 회색 벽면녹화 및 탄소저감 생활 환경 숲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무궁화동산 조성, 광산C주변 생태광장 조성, 학교 숲 조성, 녹색 복지공간 조

성 등 생활권 주변 도시 숲 확충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시아 전통 문화 역사공원 조성, 한세봉 도시농업생태공원 조성, 운암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광주공원 시민회관 열린공간 조성 등 자연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도 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광주의 공원녹지분야 예산확보 비율이 높아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도시생태 숲 확충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 직원들이 FISU대표단 방문을 앞두고 10일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U대회조직위 제공)

## 광주U대회 성공개최 스타트

조직위 내달 광주 FISU 행사 준비 올인

내년 7월에 열리는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를 앞두고 최근 청사 이전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대회조직위원회가 내달부터 광주에서 열릴 대규모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행사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이번 FISU 행사는 내년 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조직위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예행연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다음달 10일부터 4일간 열리는 FISU 집행위원회가 광주U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다.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해 실제 대회 개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3월17일 DJ센터에서 개막하는 'FISU 포럼'은 U대회 개최도시가 차질없이 원만하게 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행사다. 'FISU 포럼'은 현재까지 53개국 260여 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

3월 말 열리는 'FISU 세미나'는 조직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FISU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조직위 직원들을 교육하게 되는데, U대회 조직위 조직 개편 등의 문제로 애초 2월에 서한 달 가량 연기됐다.

/홍행기자 redplane@

련 업무 대부분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FISU 본부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대회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만큼 관련 업무와 행사에 거의 모두 광주 현지에서 이뤄지게 됐다. 특히 다음달 열리는 행사들은 대회 준비상황 점검 차원이 아닌, FISU에서 직접 진행하는 국제 이벤트인 만큼 조직위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3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는 굵직한 FISU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3월 10~13일 열리는 감독위원회(CSU)회의를 시작으로 14~15일에는 집행위원회 조정위원회(CIC), 16~23일에는 CDSU(개발위원회)가 진행된다. 또, 17~22일에는 FISU 포럼, 그리고 31~4월6일에는 FISU 세미나 등이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FISU 포럼 기간 중에는 등록인증위원 콘퍼런스와 아시아 대학스포츠연맹회의, 오세아니아 대학스포츠연맹집행위원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 마크 반 덴플라스 하계유니버시아드 국장 등 FISU 대표단 4명도 이들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광주를 찾았다.

지난해까지는 광주U대회 관

## 광산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광주시 광산구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다음달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2012년~2013년 평균 배출량을 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은 오는 2015년 3월 분 수거 수수료의 80%를 감면하고, 5% 이상은 수수료의 50%를, 그리고 5% 미만 감량한 공동주택은 거 수수료 20%를 감면한다. 지난 2011년 진행된 대회에서는 28개 공동주택이 참가해 모두 7개 공동주택이 감량에 성공했다.

/최승철기자 srchoi@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파이오-50" 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가 함유되지 않은 3주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상담실 080-234-6588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